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부모님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이과 통합 첫 수능… 코로나 속 51만명 응시

일반·자가격리자·확진자 구분 86개 지구 1251곳서 일제 시험 국어영역 '초고난도' 문제 없어 고난도 문항으로 순위 가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8일 치러졌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50만 9821명으로 수험생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251개 시험실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 재수생과 'N수생' 등 졸업생 응시자는 14만 9111명이다.

문·이과 통합 체제로 처음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영역은 전년도 시험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소 쉬워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공통과목에서 초고난도 문항, 일명 '킬러 문항'은 없었으나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고난도 문항이 포함됐고, 중하위권에게는 대체로 체감 난도가 높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파트 '해결 변증법(4~9번)', '기축통화'(10~13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꼽혀 최상위권 순위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영역 문제를 분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김용진 서울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지난 6월 실시된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했고 상대적으로 쉬웠던 9월 모의평가 보다는 조금 어려운 소재로 출제됐다"며 "전통적으로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독서 영역의 지문이 짧아지고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수능과 비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해도 독서와 문학 영역은 비슷한 난이도로 분석됐다.

수험생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점심 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모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단,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점심 식사 시간에만 칸막이가 설치됐다.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돼 치러졌다. 전국에서는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이 각각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 지정 병상에서 시험을 치렀으며,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112곳에서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 고사장 앞 풍경도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그려졌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수능장 앞 응원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5일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으며,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 기간을 거친다. 최종 정답은 이달 29일 오후 5시 확정해 발표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배부 예정이다. 단,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표기되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 기재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csatscore.kice.re.kr)에서도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는 12월 16일까지 대학별로 발표하며, 같은달 17~20일 합격자 등록이 이뤄진다.

수능 성적 통보, 수시 합격자 발표 후 2022학년도 일반대 정시모집이 진행된다. 일반대 정시 원서접수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정시 지원은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 가·나·다 군별로 차례씩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 선발 규모는 수시 미충원 이월로 모집 정원이 증가할 수 있다.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원서접수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8일까지 대학별로 발표한다. 정시 미충원에 따른 추가모집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수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올 6·9월 모평 출제기조 유지”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 “코로나 학력격차 특이점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수험생간 학력격차가 예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올해 6·9월 모의평가 출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사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수능체제에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장은 “국어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영역도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에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선택과목 응시생 집단에 공통과목 점수를 이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해서 표준화 점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서 파악된 각 선택과목별 응시생 집단의 특성을 이용해 문항의 수준을 조금 조절해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고려해 출제했다는 질문에는 “두 차례 실시한 모의평가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학력 양극화와 관련된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번 수능은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제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